서울연구원
The Seoul Institute

2018년 연구분야별

연구자문·소통협력 위원회 2분과 개최결과 보고

2018. 10.

기획조정본부

1 회의 개요

☐ 제2분과(교통시스템, 안전환경, 도시공간)

○ 일　　시 : 2018년 8월 28일(화) 14:00~16:00

○ 장　　소 : 서울연구원 대회의실

○ 2분과 참여위원 : 12명

- 김**　　**대학교 사회학과 교수(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)
- 전**　　**대학교 행정학과 교수(연구자문위원회)(추가 참석)
- 이**　　**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(연구자문위원회)
- 최**　　****연구소장(연구자문위원회)
- 변**　　**대학교 교수(연구자문위원회)
- 김**　　**** 정책연구센터장(소통협력위원회)
- 한**　　**** DB 운영자(소통협력위원회)
- 김**　　서울시의회 *****위원회 수석전문위원(소통협력위원회)
- 이**　　******연합 운영위원장(소통협력위원회)
- 이**　　*****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(소통협력위원회)
- 장**　　***연구소 소장(소통협력위원회)
- 서**　　******** 주거복지기획처장(소통협력위원회)

☐ 회의진행 순서

○ 부원장 인사말

○ 서울연구원 발표 : 2018년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관련 보고

○ 2019년 분야별 연구과제 발굴 자문

2 주요 내용 요약

□ 공통 연구주제

1) 지방 분권

○ **도시계획, 전력관리, 세수, 교통 규제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각 분야별 시리즈 연구 필요(김**, 변** 자문위원)**

- 도시계획, 전력관리, 지방재정권, 교통 규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, 자치인사권, 재정운용권 등에 권력 이양 필수
- 주거복지, 일자리 창출 등 시리즈 연구 모델 발표 및 이슈화 필요

○ **지방정부 선도할 핵심과제 선정, 실질적 대안 제시 연구 필요(서** 자문위원)**

- 지방화: 재정, 복지 등 부각 필요

□ 연구 추진 방향

1) 통섭적 연구 필요

○ **이슈를 중심으로 한 통섭적 연구 필요(이** 자문위원)**

- 마을 주차장(도시계획-교통), 도시철도 부대사업수익의 공공성(문화-교통), 미세먼지 감축(교통-환경), 공유주차(교통-기술) 등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통섭·통합적 연구가 필요
- 분야별 병렬구조로 수행되지 않도록 운영방안 고려

2) 시민생활 밀착형 연구 중요

○ 거시적 연구도 좋으나 생활 밀착형 연구 중시 필요(한** 자문위원)

- 도시교통분야: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효과적 속도, 스크린 도어 편익, 자전거 헬멧 문화 등

3) 협력연구 네트워크 강화(이** 자문위원)

○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 사업 발굴 강화

○ 최근 서울시 정책 사례 전파

4)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 사업 확대 필요(이** 자문위원)

○ 시민, 현장 전문가와 소통 차원에서 중요

□ 데이터 관리 및 연구결과 확산

○ 시민들의 생활 관련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를 융합하여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구축(김** 자문위원)

○ 연구결과의 시정 반영 결과에 대한 자체검토 필요(이** 자문위원)

○ 보고서 이외의 연구결과 확산 방안 검토(이** 자문위원)

3 부서별 해당 자문

☐ 교통시스템연구실

○ **민원 발생 추이 분석을 통해 향후 민원 발생 시간 및 장소 예측 (한** 자문위원)**

- 서울교통공사 민원 21만 건을 활용하여 향후 민원이 언제, 어떤 위치에서 민원이 발생할지 예측(ex. 여름철 냉방 민원이 열차의 어느 칸에서 주로 발생하는지)

○ **심야대중교통 운영방식의 전환 검토(한** 자문위원)**

- 심야 시간대 지하철, 버스 운영비용 분석을 통해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 검토

○ **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와 안전의 관계 검증 필요**(ex. 빠를수록 안전하다) **(한** 자문위원)**

○ **지하철 스크린도어와 환기의 관계(한** 자문위원)**

○ **장애인 이동권 연구(이** 자문위원)**

○ **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육교 실태조사(이** 자문위원)**

○ **광역교통청 대응 방안 연구(임승빈 자문위원)**

☐ 안전환경연구실

○ **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분야를 통합하는 협력연구로 수행 (이** 자문위원)**

- 5차지역에너지 계획 시 민선6기에 시행했던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, 미세먼지 정책들을 통합하며 앞으로 10년간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연구 필요
- SeTTA 연계방안 고려, 기관뿐 아니라 시민연구자들도 포함하는 방안 고려

○ **기후변화에 대비한 노후인프라 점검 및 설계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(이** 자문위원)**

- 폭염,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의 인프라 용량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
- 앞으로의 생활 SOC(복지관, 도서관 등) 구축 시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설계 과정에 도입되어야 함 (ex. 노원구 대강당이 폭염 대피소 성격으로 변화)

○ **더욱 확대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구체적 운영방안 설계 (이** 자문위원)**

- 향후 서울시 예산의 5%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할 예정,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 필요

○ **한강 관련 중장기 비전 수립, 물관리 분권화를 주도하는 연구 필요 (최** 자문위원)**

○ **비오톱지도 활용방안 연구 필요(김** 자문위원)**

- 서울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비오톱지도 활용. 비오톱 1등급 소유자와의 갈등 문제에 관한 연구는 전무

○ **지천 양안 정비와 기온변화에 관한 연구 필요(김** 자문위원)**

○ **미세먼지의 원인인 난방 분야 검토 필요(김** 자문위원)**

○ **공원 내 사용수익 허가시설에 대한 관련법 연구 필요(김** 자문위원)**

- 공원 만족도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사용수익 허가시설의 입찰 등 관련법 검토

○ **한강 이외의 지천에 설치된 보의 실태조사 필요(이** 자문위원)**

○ **석면, 라돈 등 생활안전과 관련한 문제 검토(이** 자문위원)**

○ **공원 일몰제 관련 연구(이** 자문위원)**

○ **기후온난화, 미세먼지, 폭염 등 신(新) 재난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 (전** 자문위원)**

▢ 도시공간연구실

○ **도시재생 연구 중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계획 모델도 중요하나 정책의 방향성, 운영방식에 대한 제안이 필요(장** 자문위원)**

-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
- 서울만의 재생 특징 있음. 서울 모델 정립 필요, 도시재생 정책 기본연구 필요
- 사회적 경제, 마을 단위 협동조합, 공공자산화 전략 등도 함께 검토 필요
- 기존 도시재생 사업 모니터링 연구 필요

○ **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검토(변** 자문위원)**

-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의 역할 수행 및 전문성 검토 필요

○ **민선7기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 필요(김** 자문위원)**

- 인사동, 북촌, 노유거리, 휴먼타운 등 정책적 시범사업들을 재평가하여 과거를 되짚어가는 연구 필요, 현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참고

○ **서울시 내 유휴공간의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검토(이** 자문위원)**

- 서울시 내 유휴공간들을 유형화하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시민·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 마련 필요
- 서울시설관리공단, 서울교통공사와 협업 전수조사 진행

○ **학교 통폐합 이후 유휴공간 활용방안 검토(이**, 김** 자문위원)**

○ **분권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(변** 자문위원)**

-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공공의 역할이 계약, 시설관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복지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함(ex. 파리 아비타 조직 사례)

○ **마을주차장 확보 방안, 장기적 구상 필요(변** 자문위원)**

○ **주거비 부담과 시민 행복의 관계(변** 자문위원)**

○ **지하도시 과연 괜찮은가?(이** 자문위원)**

○ **서울의 역사, 서울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과제 지속 필요(장** 자문위원)**

○ **공공임대주택 확보 적정성 연구(서** 자문위원)**